

농생명분야 연구개발 지원 부처 선정

농진청, 디지털 농업연구 새 전기 마련... '초고성능 컴퓨터법' 일부 개정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따라

농촌진흥청이 농생명 분야 초고성능 컴퓨터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 인력 양성 지원 정책 부처로 선정돼, 디지털농업 정책 및 이를 지원하는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농생명 분야의 초고성능 컴퓨팅 기술 개발 및 활용 촉진을 강화하는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초고성능컴퓨터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초고성능컴퓨터는 국가첨단과학기술력 향상을 위한 지식 탐구와 산업경쟁의 필수 인프라다. 초고성능컴퓨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농생명 분야 빅데이터의 통합적인 수집·분석·활용 및 초고성능 컴퓨팅 지원 확보를 뒷받침할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개정안 법률에는 농촌진흥청을 농생명 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 인력 양성 지원 정책 부처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진청은 디지털농업 정책 및 이를 지원하는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전국 농업 연구기관(대학·연구소)에서 생산되는 농생명 빅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할 거점센터를 설치하고, 초고성능 컴퓨팅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농업연구 빅데이터 활용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농업인력 부문 일자리 창출 및 국제 기술경쟁력 제고에도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

농진청은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농업을 디지털 기술농업으로 혁신하기 위해 농생명 초고성능컴퓨팅센터 등 디지털농업 핵심연구시설을 지속적으로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앞서 농진청은 2018년 가상현실 슈퍼컴 3호기 일부를 도입해 전산 성능이 9배 정도 향상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3,000자원의 업로드 유전자 정보를

분석했다. 또한 거대 유전체를 가진 양파, 오미자 유전체 분석 시간이 단축되는 결과를 통해 초고성능컴퓨터의 활용성이 입증된 바 있다.

앞으로 초고성능컴퓨팅 연구시설이 구축되면 기술경쟁력 확보뿐만 아니라 대학·산업체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시스템으로 운영, 활용성을 극대화 할 계획이다.

기상청으로부터 도입 예정인 슈퍼컴퓨터 4호기는 유전체와 표현체, 대사체 등의 생명공학 빅데이터 뿐만 아니라 스마트온실, 병충해 예찰, 농업기상 예측 등 다양한 용도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농작물의 유전체, 표현체 등 바이오 데이터를 분석해 유망종자를 조기에 선발하는 디지털 정밀육종이

가능해지고, 기후·토양·농작물 특성·유전자정보 등 농업연구 데이터 간 인공지능(AI) 기반, 융복합 분석 활용으로 스마트농업이 가속화되는 등 디지털 농업연구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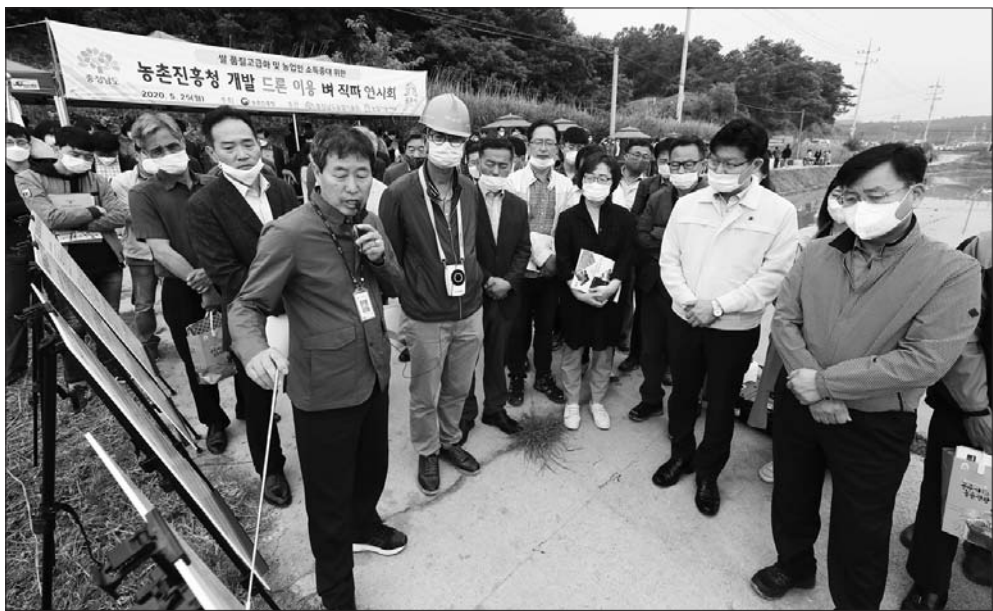
또한, 농촌지역의 복지지원을 반영, 농장 규모별로 다르게 예측하는 소기후 예측모형의 정확도를 높여 농업부문의 기상재해 대응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장기적으로 농촌진흥청과 지자체 농업연구기관 간 초고속 데이터 연구망을 구축해 빅데이터 기반의 농업과학 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고서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이번 법안 개정은 4차 산업혁명 핵심인 데이터의 지능적 활용을 위해 슈퍼컴퓨터 활용기반 확대를 요청

해 온 현장 목소리에 대한 제도적 조치"라며, "법을 소관부처로서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긴밀한 산·학·연·관 협업체계 기반의 슈퍼컴퓨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홍성진 연구정책관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농업이 디지털 농업으로 전환되는 전기를 마련했다"라며, "농식품부의 4차 산업 빅데이터 시대 대응, 농업의 디지털 농업화 정책을 뒷받침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율리 "농촌진흥청은 농생명 초고성능컴퓨터를 구축하고 활용함으로써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과학 영농의 혁신적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윤상 기자



드론 이용 직파재배 파종시연회

25일 충남 공주시 탄천면에서 열린 드론을 이용한 직파재배 파종시연회에서 김경규 농촌진흥청장과 김경실 공주시장 등 참석자들이 시연현장을 보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도시 구직자·구인농가 연결

농식품부 '도-농 인력중개 시스템' 구축 온라인 서비스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5일부터 도시 구직자들을 위한 '도-농 인력중개 시스템'(www.agriwork.kr)을 구축·운영한다. 도-농 인력중개 시스템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늘어나고 있는 도시의 구직자와 농업 일손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농가를 온라인으로 중개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동안 전국 농촌인력중개센터(217개소)는 주로 지역내 홍보 등을 통해 인근 지역 구직자를 모집해 희망농가와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최근 농업 일자리에 대한 도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반면에, 농촌은 일손 구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온라인 도-농 인력중개 시스템을 구축해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농업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

게 된 것이다. 농식품부는 도-농 인력중개 시스템을 이용한 농업 단기일거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는 농가가 지급하는 임금과 별도로 교통·숙박·보험(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부담)을 지원한다. 즉, 5월부터 도시 근로자를 위해 거주지에서 해당 인력중개센터까지 이동하는 교통비(KTX, 고속버스, 2인 이상 이동시 승용차유류비), 숙박비(2일 이상 근로 시 1박당 최대 5만 원)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농업인 경험 미흡한 근로자를 위해 숙련자와 함께 영농작업반 편성하여 농가에 배정하고 일자리 제공 농가에게는 현장 실습 교육비(2만 원/1일, 최대 3일간)를 별도 지원한다. 농업 근로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도-농 인력중개 시스템(www.agriwork.kr)

에 접속하여 근무 희망지역의 구인공고(농작업 종류, 임금수준, 근로조건 등)를 확인 후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후 해당 농촌인력중개센터 담당자와 구직자간 유선 상담을 통해 근로조건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근로 참여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이율리,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참여 근로자 대상으로 발열체크를 실시하는 한편, 마스크 제공, 작업시간 거리두기, 손 소독제 비치 등 생활방역지침을 준수토록 하고 농촌인력중개센터와 관련 보건소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경제활동 위축으로 이직, 휴직하는 근로자가 늘어나는 반면, 농업분야는 외국인근로자 수급 어려움 등으로 인력 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도-농 인력중개 시스템을 통해 도시 구직자에게 농업 일자리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농업분야의 인력부족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북중기청, 장기재직 무주택자 주택 특별공급

내달 12일까지 '정읍 상동 1차 영무예대음 공동주택'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 중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지원을 위한 특별공급 대상자를 추천하기 위해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주거 안정을 통한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장기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단 부동산업, 일반유통 주점업, 무도유통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껌 불링 및 배터널, 무도장 운영업 근로자는 제외된다.

이번에 특별공급예정인 정읍시 '상동1차 영무예대음 공동주택'의 사업주체는 주식회사 와이엔개발이며, 주택위치는 정읍시 상동 산35-1번지 일원으로, 특별공급 추천 세대수는 총 4세대(확정 추천 3세대+예비추천 1세대)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장기근속자가 대상이며, 입주 자재추(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되고 해당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200만원) 이상을 납입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6월 12일까지이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2층 조정평가기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등기)으로 접수하거나,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nhakin.mss.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국민 행복증진·지역사회 기여'

전북농협-철도공사 전복, 협약 체결

전북농협(본부장 박성일)은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본부장 김광모)와 25일 전북농협 상황실에서 상호간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양 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활용해 국민 행복증진과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김광모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장, 박성일 전북농협 본부장 등 양 기관 임직원이 참석해 스타벅사살아가는 지역사회와 국민 행복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전개 △사회적 책임 강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업사업 발굴 등을 협력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전북농협은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와 25일 농협 상황실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와 국민 행복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전개 등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협약 후속조치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촌 영농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 임직원이 참여하는 농촌일손돕기를 6월 중 실시할 예정이고, 한국철도공사의 특화된

사회공헌활동 중 하나인 '해피트레인(열차 여행)'을 양 기관이 협력해 추진하는 방안을 찾아나가는 등 이번 협약을 통해 지속적인 지역사회공헌활동을 다짐했다. /김윤상 기자



예수병원 MRI실을 확장해 예수병원 MRI 3호기인 첨단 3T MRI를 도입하고 지난 22일 개소식을 가졌다.

고해상도 영상으로 환자 신속 진단

예수병원, 첨단 3T MRI 도입 뇌경색·퇴행성 질환 등 검사

예수병원(병원장 김철승)이 MRI실을 확장해 예수병원 MRI 3호기인 첨단 3T MRI를 도입하고 지난 22일 개소식을 가졌다.

이번에 도입한 예수병원 제3호기 첨단 3테슬라 MRI(지멘스사 MAGNETOM Skyra)는 고해상도의 선명한 3차원 입체영상 기술을 이용한 정확한 영상 판독이 가능하고 넓은 출입구와 짧은 시스템 길이로 환자 친화적으로 환자 중심의 보다 신속한 진단을 자랑한다.

또한 전신척추, 관절 및 연골, 간담도조영술 등 거의 모든 신체 부분의 검사가 가능하다. 뇌 혈관 MRI 검사 시 고해상도 영상 기술을 이용해 정맥혈관종, 뇌출혈과 같이 판독이 어려운 병변 등 혈관 질환을 정확하게 판독한다. 머리, 척추측만증, 경추 등 임상 영역에서 3D 영상 촬영이 가능하고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어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조영제의 사용없이 진행되는 뇌의 관류 영상 촬영으로 보다 편안한 상태에서 MRI 검사와 뇌뿐만 아니라 복부, 척추, 관절 등에서도 확산 내막암, 난소암 등의 진단 및 병기 결정과 치료 등이다. /김윤상 기자

은 도입과 독일 지멘스사의 헬스 니어스 384 멀티슬라이스 CT 도입에 이어 오늘 예수병원 MRI 3호기 도입으로 이제 예수병원이 전국 최상위 수준의 하이엔드급의 의료 장비를 충분히 갖춘 첨단 병원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며 "최근 급증하는 첨단 장비의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는 것은 물론 예수병원이 지역사회에 선두주자로서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첨단 3T MRI 검사영역은 △뇌 혈관 검사·뇌경색, 뇌출혈, 뇌혈관 질환(MRA), 뇌기능적 영상(MRI), 간질, 조발성 치매 진단, 다양한 두경부 질환 진단 △척추 검사·퇴행성 질환, 디스크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척추 전방 전위증을 포함하는 모든 척추 질환 진단 △근골격계 검사·골수관 질환을 정확하게 판독한다. 머리, 척추측만증, 경추 등 임상 영역에서 3D 영상 촬영이 가능하고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어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조영제의 사용없이 진행되는 뇌의 관류 영상 촬영으로 보다 편안한 상태에서 MRI 검사와 뇌뿐만 아니라 복부, 척추, 관절 등에서도 확산 내막암, 난소암 등의 진단 및 병기 결정과 치료 등이다. /김윤상 기자

4월 전북 수출, 4억8001만 달러

전년대비 19.7% 감소

농기계 등 일부 선진

2020년 4월 전라북도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9.7% 감소한 4억 8,001만 달러로 집계됐다. 정밀화학원료, 자동차, 자동차부품 등 큰 폭으로 수출이 줄어든 업종이 있으나 동계품, 농기계, 농산가공품 등의 수출이 전년보다 증가하며 추가하락을 막았고, 전북 점유율(1.31%)은 전년(1.23%)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강일)와 전주세관(세관장 진운용)이 발표한 "2020년 4월 전라북도 무역동향"에 따르면, 전북 수출은 코로나 19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부

품(\$1,269만, -71.5%), 합성수지(\$3,125만, -28.3%) 등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수출이 감소했고, 폴리실리콘 생산 및 수출 증대에 따라 정밀화학원료(\$3,881만, -24.7%)도 수출이 크게 줄어 들었다. 그에 반해 동계품(\$3,262만, 17.7%), 농기계(\$2,430만, 24.1%), 기타 화학공업제품(\$1,938만, 9.2%), 인조섬유(\$1,877만, 23.8%), 농산가공품(\$1,332만, 58.0%) 등 수출이 증가한 업종도 있다.

국가별로는 중국(\$1억1,120만, -6.9%), 미국(\$7,817만, -4.3%), 일본(\$3,224만, -8.1%), 베트남(\$2,959만, -12.1%), 인도(\$1,730만, -31.0%) 등으로의 수출이 감소했고, 인도네시아(\$1,540만, 54.8%), 폴란드(\$1,351만, 26.5%), 리비아(\$962만, 542.4%), 사우디아라비아(\$883만, 17.5%) 등으로는 수출이 늘어났다. /김윤상 기자

LX, 혁신도시 '상생발전포럼' 개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직무대행 최규성)가 지역상생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소통의 장을 연다.

LX는 25일 본사가 위치한 혁신도시 로컬푸드 2층 세미나실에서 지역주민과 협력기관, 협력기업과 지자체 공무원 등 40명이 참여하는 LX 상생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인권과 윤리경영, 안전과 환경, 일자리 창출과 공정경제, 동등성 등 사회적 가치와 관련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4개 그룹으로 나

누어진 행사 참여자들은 그룹별 아이디어를 도출해 LX측 실무 담당자와 함께 공공기관을 이해하고 사회적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의견을 나누어 실행방안을 모색했다.

최규성 사장 직무대행은 "지역주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기해부 주관 사회적가치기여도조사에서 최상위 점수를 획득하는 등 지난해 대비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